제가 섬기는 지구촌교회에서는 "평생교육원" 이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당 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물론 이거니와 등록 교인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하게 시간을 내서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으며 저 역시 그 동안 부족한 외국어 과목 및 영어성경 읽기, 마술 등 끊이지 않고 강좌를 통해서 부족한 공부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서 나름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교육원 강좌를 통해서 생활 하면서 지구촌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때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와 섬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많아서 늘 마음에 짐으로 다가왔고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분주한 가운데 삶의 경쟁에서 남들보다 앞서야 살아남고 잘나고 똑똑해야 무시받지 않으며 내가 떳떳하고 성공해야만 그리스도 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일거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갈 즈음에....

주일 5부 '경배와 찬양'의 예배시 콰어어로 섬기면서 한쪽에서 열심히 수화로 말씀과 찬양을 인도하시는 농아부 목사님의 모습과 몇몇분의 농아인 예배자를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인(일반인) 회중 중에 섞여서 수화로 찬양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비록 손과 표정만으로 찬양을 따라하지만 그 손짓과 표정들이 그 어떤 화려하고 잘 다듬어진 찬양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체적인 장애가 있지만 농아인들은 함께 대화나 만나보지 않으면 청각장애인(농아인)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착용하듯이 청력이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떨어져서 듣지를 못하기에 언어를 구사할 습관을 못 만들어서 말을 못할 따름인것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혹자들이 말도 못한다는 속어로 '벙어리'라 놀리는 모습은 너무도 안타깝고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인거죠.

본당 한쪽에서 농아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준우목사님(청인)' 수화의 손끝 마다, 표정 하나하나가 수화 예배중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수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오래 전부터 마음속에 수화봉사의 기회를 찾던중 평생교육원에서 "수화교육" 초급반을 등록하여 몇몇 분 들과 수화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2001년 5월,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1년간 침상에 누워지냈고 신체 오른쪽 신경을 다쳐서 지금도 오른쪽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운데, 수화의 시작은 손가락을 풀어주고 대부분의 언어는 열 손가락과 표정이면 충분히 의사 표현이 가능하기에 "수화과정"이 저에겐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화를 즐겨하는 사람은 절대 치매가 안걸린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지화(손가락으로 한글 작성)로 ㄱ.ㄴ.ㄷ.ㄹ...가.나.다.라....1.2.3.4...나.너. 어머니. 아버지 등...성인들이 모여서 마치

문맹자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딧기 위한 몸짓, 손짓 인것 같아서 서로 웃으며 수화로 대화하고 선생님의 수화를 따라 배우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농아인들의 불편한 모습과 애로사항, 그리고 청인(말하는 일반사람) 인 우리들이 농아인들을 대하는 자세등을 설명해 주실때에 우리 모두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도운다는 막연한 생각 보다는 그들의 생활환경과 어려운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함께 같은 환경 속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며 하나님께서 청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화교육을 함께 받는 학생 중에는 타 종교인과 비 종교인도 있었으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중한 존재이며 세상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동등하고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체적인 불편함은 서로가 함께 나눈다면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즐기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 하면서 함께 수화 교육을 받는 학생들 모두가 마음 속으로, 훗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농아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불편한 사항들은 대변해주고 함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성숙해 나가는데 작지만 소중한 사명들을 장 감당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봅니다.

99마리의 양 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영적.신체적 장애인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리라 굳게 믿으며 이 사명 중에 하나인 지구촌교회 평생교육원 수화교육과정을 통하여 신앙이 굳건해지는 가운데 사회적, 정신적으로 약자인 농아인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아름다운 농아인 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달라고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마가복음 7:32~35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아멘!

|  |
| --- |
| 블로그서명 |
|  |